

벤처캐피탈 및 PEF 전망과 주요 이슈

장 정 모

금융산업실 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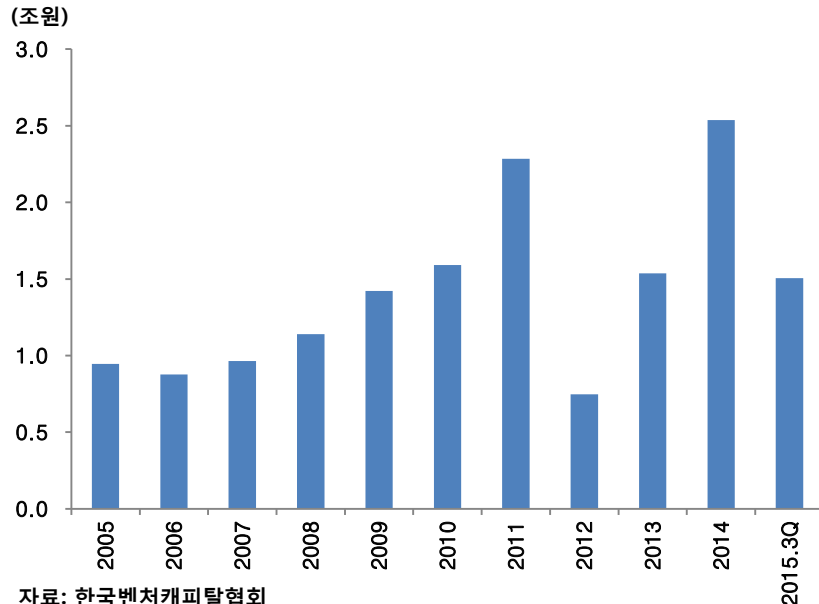


2016년 벤처캐피탈: 자금모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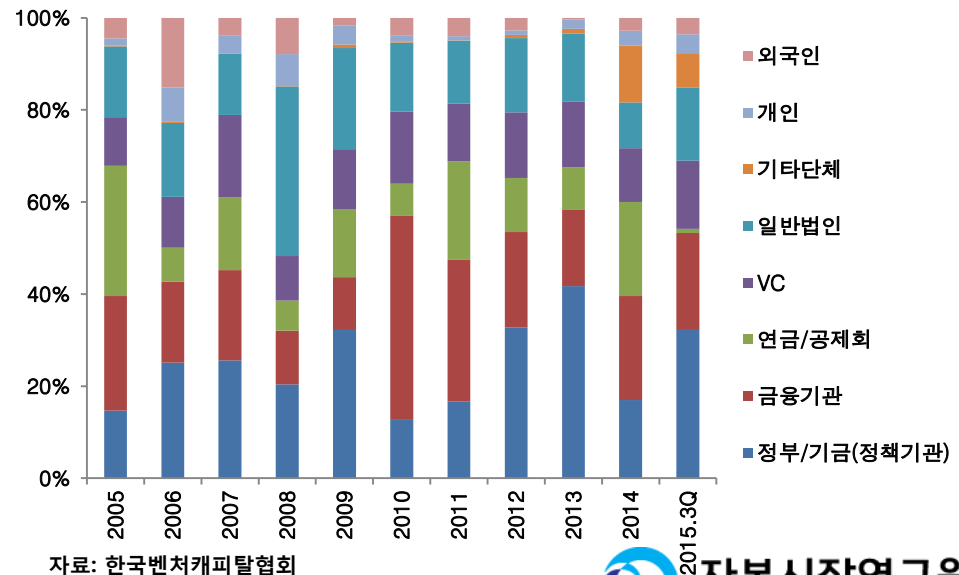
❖ 2016년 벤처캐피탈 자금모집은 2015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-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결성된 95개 조합의 총 결성금액은 2조 2,808억원
- 정책자금이 여전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, 민간출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
 - 모태펀드의 예산 삭감 폭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불확실

연도별 VC 자금모집



연도별 자금모집액 LP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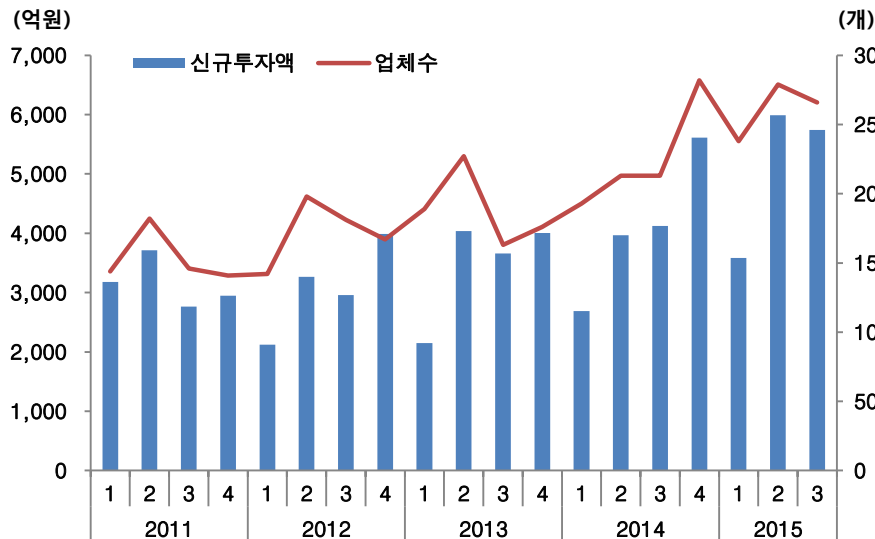


2016년 벤처캐피탈: 투자

❖ 서비스업 기반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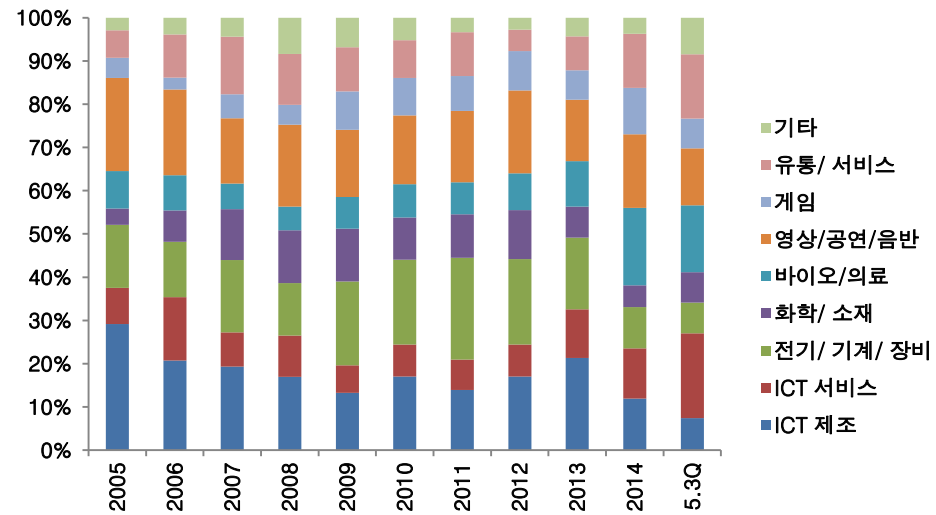
- 11월까지 집계된 2015년 벤처캐피탈 투자총액은 1조 8,271억원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 - 벤처기업 수는 2015년 말 기준 약 3만개로 증가하였으며, 기업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도 성장세
- 투자분야별로는 ICT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바이오/의료, 유통/서비스, 영상/공연/음반의 순
 - 엔젤투자자 수도 증가세에 있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됨

연도별 신규투자 추이


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연도별 업종별 투자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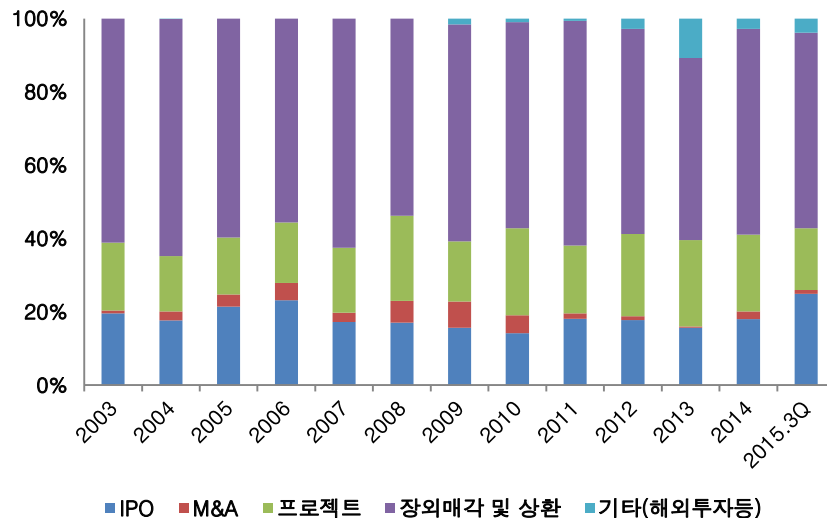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2016년 벤처캐피탈: 회수

❖ 2013년 이후 활발한 코스닥시장 IPO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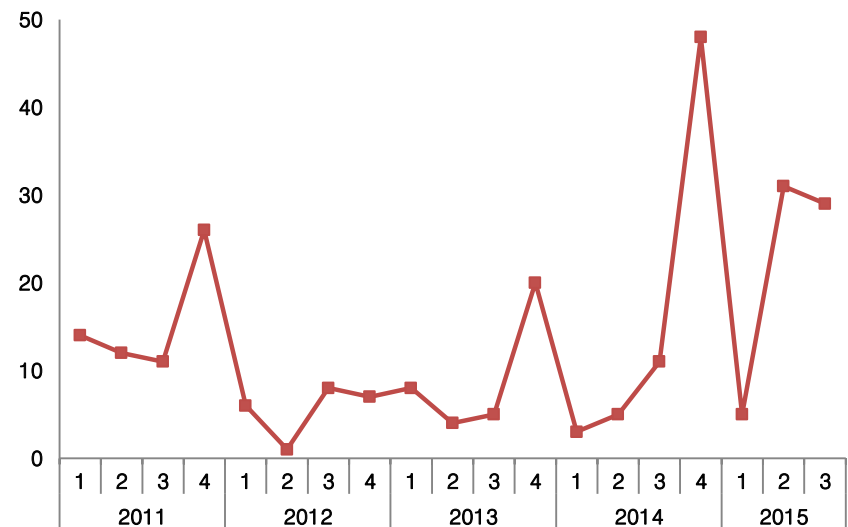
- IPO와 M&A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세에 있으며, 세컨더리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또한 예상보다 빨리 코넥스시장이 주요 회수수단 중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

국내 회수시장별 비중


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국내 코스닥 연도별 IPO건수



자료: 한국거래소

2016년 벤처캐피탈: 정책적 변화

❖ 모태펀드의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

- 2015년 4,000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1,01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, 회수자금을 신규투자자금으로 활용하여 부족분을 채울 계획
 - 이는 벤처생태계가 정부의 도움이 아닌 민간자금을 통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

❖ 정부의 신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선 계획

- 특정 성장동력 분야에 선제적 자금지원
-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
- 중기특화증권사를 통해 벤처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
-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

❖ 중소·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투자위축효과는 미지수

2016년 벤처캐피탈: 시장의 변화

❖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국내 벤처시장 진입 확대 예상

- 글로벌 VC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장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짐
 -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져 규모 혹은 범위의 경제 추구가 현실화

❖ 국내 벤처생태계의 자생력 강화

- 정책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벤처캐피탈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
- 매출 다각화를 위한 국내 벤처기업 간 M&A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
- IoT, 핀테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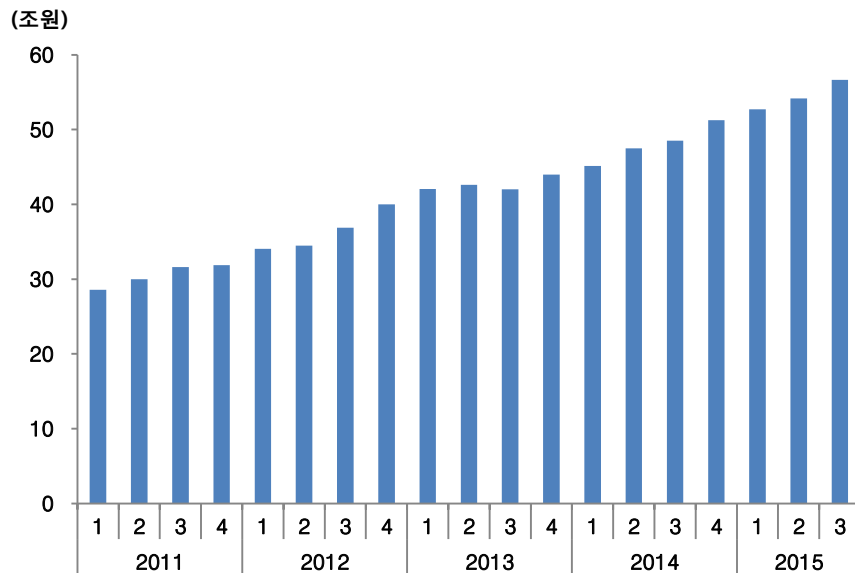
❖ 미국 벤처투자 '버블'이 터질 경우 국내 벤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클 수 있음

2016년 PEF: 자금모집

❖ 2016년 PEF 시장은 2015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(약정액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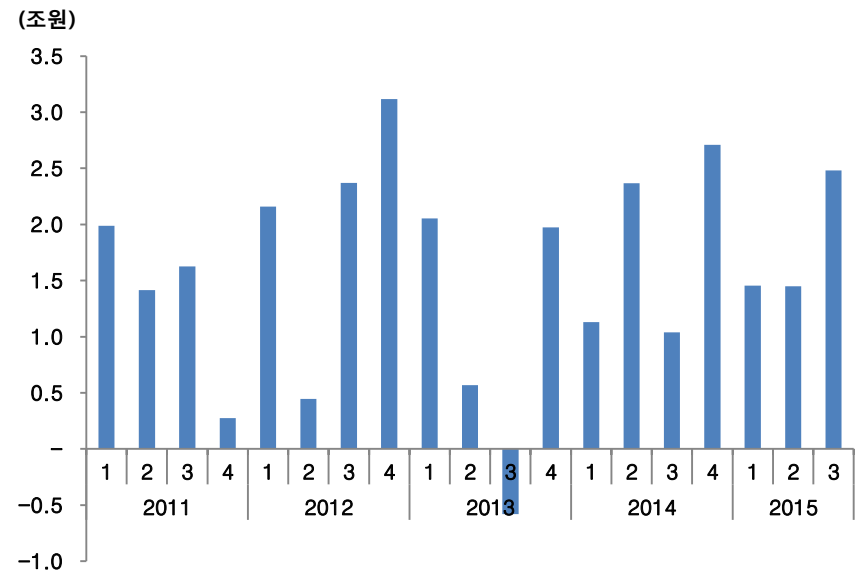
-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수요가 확산되면서 국내 PE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
 - 2004년 도입된 PEF는 2015년말 기준 개수는 약 300여개, 출자약정 총액은 60조원으로 성장

국내 PEF 출자약정액



자료: 금융감독원

국내 PEF 신규순설정액



자료: 금융감독원

2016년 PEF: 투자 및 회수

- ❖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바이아웃 투자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❖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이 꾸준히 나올 것이며 2015년과는 달리 이들 중 상당수를 국내 대형 PEF가 소화할 것으로 전망
 - PEF들은 과거 수년간 축적된 투자역량과 충분한 투자자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일부 대형 매물의 경우는 해외 전략적 투자자 및 PE의 참여도 예상
- ❖ PEF 회수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더딜 것으로 예상
 -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, 이후 자본시장의 침체와 인수기업의 보수적인 가격책정으로 회수가 보다 어려워진 상황
 - 일부 사양산업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투자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
 -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한 움직임은 없음

2016년 PEF: 정책적 변화

- ❖ **2015년 10월부터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**
 -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(헤지펀드)과 경영참여형(PEF)으로 단순화하여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
 - 개정안은 증권투자 허용확대, 금융전업그룹 PEF규제 완화, 복수의 SPC설립, 설립절차 간소화, 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
- ❖ **유암코가 재무안정 PEF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**
 - 자본금 2천억원 미만의 한계기업 10여개를 선정하여 주채권은행들과 가격협상 후 최종선택
 - 유암코의 재원을 확대하여 구조조정기업의 채권 및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
- ❖ **조선·해운·건설 등과 같은 국가인프라적 성격을 지닌 한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
에 있어 PEF의 역할은 불분명**

2016년 PEF: 시장의 변화

- ❖ **국내 PEF의 투자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은 PEF 운영사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**
 - 이는 PEF의 평가기준이 자금조달 능력이 아닌 인수기업의 경영능력과 자금회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임
 -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일부 국내 PEF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
- ❖ **당분간은 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PEF 진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**
- ❖ **PEF의 중소 증권사 인수가 계속 이어질지가 주목되며, 이들의 사업다각화가 성공적일 경우 새로운 투자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음**